

광주에 울려 퍼진 ‘e스포츠’ 열기, 장맛비도 뚫었다

광주 e스포츠 경기장서 을 첫 전국 대회 ‘2025 KEL’

전남 등 14개 지역 프로팀 참가…총상금 1억원 규모

“e스포츠 리그를 보려고 서울에서 왔습
니다. 광주 팬들이 응원해주니 너무 즐거
웠습니다.”

“2025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 (KEL)”의
두 번째 오프라인 대회가 열린 지난 21일
광주 동구 e스포츠 경기장 (조선대학교 해
오름관).

경기장은 굵은 장맛비 등을 뚫고 들려오
는 해설자의 목소리와 관중들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경기장에는 선수, 감독 등 관계자와 관
객들을 포함한 200여명이 자리하고, 인터
넷 방송 플랫폼인 지지직, 유튜브 등을 통
해 온라인 관중 5000여명이 함께 했다.

KEL은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
스포츠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첫 전국
e스포츠 대회로, 지역별 리그전으로 진행
됐다.

광주를 비롯해 부산, 대전, 세종 등 14개
지역 프로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상금
은 1억원 규모다.

대회에는 FPS 배틀로얄 형식 게임인 배
틀그라운드 모바일(16팀), 축구 게임인
FC모바일(8팀) 등이 진행됐다. 쿼터뷰 배
틀로얄 형식 게임인 이터널 리턴은 대회
운영상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대회 첫날인 21일에는 배틀그라운드 모
바일이, 22일에는 FC모바일 경기가 펼쳐



지난 21일 배틀 그라운드 모바일 선수들이 e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졌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속, 한
경기 한 경기에 관중들의 시선이 집중됐
다. 선수들의 플레이에 감탄과 탄식이 교
차하고 개입을 분석하는 감독과 코치들도
눈에 띄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이뤄지는 치열한 전략
회의는 또 다른 볼거리였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을 광주 프로
팀 GJEOS의 주장 유서운씨(21)는 “늘 잘
하고 싶지만, 광주에서 열리는 경기라 더

잘하고 싶다”며 “지역 연고제 운영 덕분에
다양한 경기장에서 대회가 열리고, 홍보도
잘 되는 것 같다”고 덧붙혔다.

광주 출신 선수의 부모인 박모씨(52)는
“이미 e스포츠는 하나의 종목으로 자리매
김했다”며 “부모와 자식이 함께 구경 와서
함께 체험하고 소통하는 축제로 e스포츠
문화가 발전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게임이 끝난 뒤에는 선수들과 인사하고
사인을 받는 관객도 상당수였다. 이 중에
는 대회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온 팬들도
있었다.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
하겠다”며 “지역에 구축된 e스포츠 경기
장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e스포츠 산업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지속 가능한 대회
운영을 약속했다.

다음 오프라인 경기는 △7월 19~20일

경남 e스포츠 경기장 △8월 9~10일 부산
e스포츠 경기장 △8월 30~31일, 10월11
일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리고, 무료
로 관람할 수 있다.

최종 결선은 FC모바일 8월10일 부산e
스포츠 경기장, 배틀 그라운드 모바일과
이터널 리턴은 각각 8월31일, 10월11일
대전e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한편, 2024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16개의 e스포츠 게임단 중 12개 게
임단이 지역 연고제가 필요하다고 답했
다.

e스포츠 대회 현장 관람 이유는 대회 출
전 선수를 보기 위해서가 35.7%로 가장
높았고 대회인지도, 대회 이벤트가 각각
26.1%, 23.6%로 뒤를 이었다.

임재용 인터넷j djawodyd0316@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교육청, 유보통합 업무이관 준비

내달부터 시·5개 자치구에 교육행정직 15명 파견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7월부터 1년간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에 교육행정직 공무원 15명을 파견한다.

이번 파견은 유보통합 지방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
됐다.

파견자는 각 지자체의 보육 행정 업무랑

과 어린이집, 기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광주시 3명, 동구·서구·남구 각 2명,
북구·광산구 각 3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유보통합 이후 시교육청이 맡아
야 할 보육 업무를 파악하고 이관을 준비
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로는 △전반
적인 보육 업무 파악 및 운영체계 분석 △

보육 업무 매뉴얼 제작 △보육 정책 개선
사항 발굴 및 제도 제안 △교육청-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시교육청은 인력 파견을 통해 보육 정책
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보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파견은 유보통
합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전략적 준비 과
정”이라며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
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



보훈의 달 기념 나눔음악회 21일 오후 광주 서구청 들불마을에서 열린 보훈의 달 기념 '상무2동 나눔을 음악회'에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도박에 빠져드는 광주·전남 청소년 ‘위험 수위’

지난해 62명 입건…1년 만에 3배 이상 폭증

평균 금액 451만원…“주기적 예방교육 필요”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경찰에 체포된 미성년자
수가 3배 이상 폭증하고 있어 사회적 대응
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
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지역에서
검거(입건)된 청소년 불법 도박 검거자는
62명(광주 21명·전남 41명)으로 집계됐
다. 이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을 제
외한 도박 행위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광주지역에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0명에서 이듬해 6명(평균 나이 16.2세),
2024년에는 21명(16.5세)으로 뛰었다.
특히 14세 검거자는 2023년 1명에서
2024년 5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18

세도 1명에서 10명으로 폭증했다.

전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22
년 1명에 그쳤던 도박 청소년은 2023년 6
명(평균 나이 15.5세) 이었고, 2024년에는
34명(16.4세)으로 급증했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은 바카라 및
룰렛이 70~80%를 차지했다. 스포츠 도박
(20%대)과 블랙잭, 옹호 등에 손을 댔 청
소년도 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57명)이
여학생(5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인 경로를 보면 친구 소개가 60~70%
였다. 온·오프라인 광고, 호기심, 금전 욕
심 등도 있었다.

광주·전남청은 도박 청소년을 일선 서
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

치하고 있다. 지난해 547명 중 3명을 입건
(송치)하고 161명을 즉결심판, 383명을
훈방 조치했다. 이러한 처벌에도 도박에
서 빠져나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광주전남도박문제방지유선
터 등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1~4월 치유센터를 방문해 도움
을 요청한 청소년은 45명으로, 2023년
(25명)보다 1.8배 늘어났다.

도박경험 평균 기간은 약 1년7개월이
며, 최초 도박 경험 시기는 초등학교 6학
년 1명, 중학교 1학년 10명·2학년 12명,
고등학교 1학년 9명 순이었다.

평균 도박자금은 451만원이며, 중학생
204만원, 고등학생 622만원으로 조사됐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대
다수는 “학교에서 도박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고 털어놓
기도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조선대 학생들이 美 텍사스서 로켓 발사 성공

항공우주공학과 HANul팀, 국제로켓대회 IREC 출전 성과

조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소속
‘HANul’ 팀(지도교수 김태규·이현
재)이 지난 9~14일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국제로켓공학대회 IREC(Intern
ational Rocket Engineering Com
petition) 본선에 처음으로 참가해 로
켓 발사에 성공했다.

IREC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
생 로켓 대회로, 올해는 최종 본선에 전
세계 23개국 145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본선에 참가한 HANul 팀은 항공우
주공학과 남동현, 강승교, 위종찬, 이인
규, 진선화, 황진하, 김정욱, 남광현, 박
지현, 이남규 재학생 10명과 의과과 이
선우 재학생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수행한 미션은 카나드핀과
Cold Gas 기반 RCS(Reaction Con
trol System) 추력기를 이용한 로켓 자
세 제어로, 정밀한 설계와 제어 기술이
요구되는 고난도 과제였다.

HANul 팀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로켓을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발사함으
로써 기술력과 실행력을 입증했다.

남동현 팀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연
구·개발로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발
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사람과도시

크리고 자연환경 오늘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믿음 주고 사랑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부분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검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분

빗물저류 침투조,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공법, 우수분리장치 외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881등급 보도용 방호 울타리(설치의무화)
기초공사가 필요 없어 공사비 절감
보행자를 방호율타리 적용(기준안락)
보도폭 확보 용이

빗물저류 침투조

블록형 결합구조로 시공이 간단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공극률 95%이상
RoHS 기준, 도양오염원경기준,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강제 롤러 가드레일

개방형 가드레일

교량 난간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알루미늄 데크

식생포장

(주)한길산업

본 사 1광장)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공단길 35 Tel.061)324-9123
사무소 2광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신단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US)로 172 한림유연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